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7.26(금) ~ 2024.8.1(목)

제공일시 2024 08 0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7.26(금) ~ 2024.8.1(목)

제공일시 2024 08 0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美 의회, 中 무역범죄 전담 TF 신설 법안 추진

- 미국 의회가 중국의 무역범죄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을 법무부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함
- 미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이후 원산지 사기 등 중국의 무역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이 법안은 미 법무부 산하에 무역 범죄를 담당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원산지 사기, 관세 회피,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탐지·조사·기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서울경제 2024.7.31) 윤홍우 기자

2. 호주 기후 공시 의무화, 기업들 마비에 빠졌다?

- 호주가 강력한 기후 공시 규칙을 마련하면서 기업들이 마비에 빠졌다고 29일(현지시각) 블룸버그가 전함
-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데이터에 따르면, 호주는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보다 기후공시로 인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호주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호주비즈니스협의회(BCA)는 “기후 공시 의무화 법안을 1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관련 단체의 우려와 반발이 이어짐
- 블룸버그에 따르면, 호주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달 새로운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 규칙은 2027년까지 3그룹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임팩트온 2024.7.29) 김환이 기자

3. 인도, EU ‘탄소세’ 도입 반대 움직임… 재무부 차관 “불공정하고 유해”

- 인도가 수입 철강 제품 등에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유럽연합(EU)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함. EU는 인도에 두 번째로 큰 수출지역임
- 아자이 세트 인도 재무부 경제 담당 차관은 전날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 일행이 이달 초 뉴델리를 방문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관해 설명했지만 이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함
- 세트 차관은 인터뷰에서 “그들(EU 측)의 제안은 실제적이지 않다. 그들이 제안하는 (탄소 배출 문제에 관한) 해법은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CBAM은 인도 국내시장 비용을 감안하면 불공정하고 유해하다고 주장함

(서울경제 2024.7.30) 연승 기자

1. 민관 손잡고 ‘고온가스’ 개발 나선다

- 정부와 민간기업이 손잡고 차세대원자로인 ‘고온가스’ 개발에 착수함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고온가스 설계를, 원자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등이 플랜트 설계를 각각 맡아 2027년까지 완성하는 게 목표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스마트파워, SK에코플랜트, 롯데케미칼 등과 함께 산업 공정열을 공급할 수 있는 고온가스 개발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
-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455억원(정부 255억원, 민간 200억원)을 투입해 고온가스 기본설계를 완료할 계획임

(디지털타임스 2024.7.31) 이준기 기자

2. ‘사용후 배터리 활용’ 환경부,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 신설

- 환경부는 사용후 배터리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음
- 지원단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직속기구로 운영되며, 지난 1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방안’ 후속조치를 맡음
- 특히 재생원료 인증제도 마련, 리튬인산철 배터리(LFP) 재활용체계 구축 등 이차전지 순환이용을 위한 산업계 지원에 집중함. 폐전기·전자제품, 태양광패널 등 이차전지와 연관성이 큰 미래 폐자원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도 추진함

(연합뉴스 2024.7.29) 고은지 기자

3.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발표… “홍수 막고 물그릇 확보”/ 기후대응댐 건설 발표에 환경단체들 반발 “기후문맹적 발상”

- 정부가 기후대응댐 14개를 짓기로 함. 환경부는 30일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함
-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총 14곳으로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임.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임
- 한편, 정부가 전국 14곳에 기후대응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섬
- 녹색연합은 규탄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고 이를 중심에 둔 물관리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함

(뉴스웍스 2024.7.30) 허운연 기자

(아주경제 2024.7.30) 주혜린 기자

4.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서 ‘역동경제 로드맵’ 소개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소개함
- 세계 경제 전망·평가 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한국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소개하면서 노동 참여와 이동성 제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한 경쟁 지원, 인공지능(AI) 주도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기술혁신 등을 강조함
- 또, 기후목표 달성과 지속 가능 금융에 대해 논의한 세션에서는 “지속 가능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파리협약에 부합하는 전환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함

(뉴스1 2024.7.28) 임용우 기자

1. 테슬라, ‘中 화유 생산’ 인도네시아산 배터리 전구체 들여온다

- 미국 테슬라가 내년부터 중국 배터리 금속 생산업체 화유코발트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EV) 배터리 전구체(니켈·코발트·망간 또는 알루미늄)를 탑재할 전망이다
- 테슬라가 현지 공장을 건설하는 대신 인도네시아산 배터리 소재를 공급받는 것으로 보여짐
-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 겸 투자조정위원회(BKPM) 위원장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올해 2분기 투자 실적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 전구체가 테슬라에 판매될 것”이라고 밝힘

(더구루 2024.7.31) 진유진 기자

2. IAG, 스페인 에너지기업 ‘렘솔’과 SAF 2.8만톤 구매 계약 체결

- 영국항공, 이베리아항공 등을 보유한 대규모 항공사 그룹 국제항공그룹(IAG)이 스페인의 거대 에너지기업 렘솔(Repsol)과 2만8000톤의 지속가능항공유(SAF) 구매 계약을 체결함
- 렘솔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6개월 동안 IAG에 이 같은 규모의 SAF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스페인에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SAF 구매 계약이라고 밝힘
- IAG는 구매 계약을 통해 내년까지 EU 내 공항에서 급유하는 항공연료의 최소 2%를 SAF로 대체하도록 하는 EU의 리퓨얼EU(ReFuel EU) 규정을 준수하는 데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함

(ESG경제 2024.7.30) 김현경 기자

3. 도요타, 후쿠오카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신설… “2028년 이후 가동”

-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규슈 후쿠오카현 동북부 간다마치에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27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는 내년쯤 공사를 시작해 2028년 이후 배터리 공장을 가동할 계획임
- 도요타가 수천억엔(한화 수조원)을 투자하고, 일본 정부도 일부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짐
- 현지 언론은 도요타 공장까지 새로 들어설 경우 반도체, 영상 센서 등을 아우르는 생산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전망함

(데일리한국 2024.7.27) 최용구 기자

4. 폭스콘, 中정저우에 2000억원 투자… 전기차·로봇센터 건설

- 애플 최대 협력사 대만 폭스콘이 중국 정저우시에 신규사업본부를 건설하기로 함. 중국이 ‘3중전회’ 이후 대외개방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정부들도 외자 유치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음
- 25일 차이신에 따르면, 폭스콘 모회사인 훙하이그룹은 전날 대만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폭스콘이 허난성 정부와 전략적 협력을 체결하고 10억위안(약 2000억원)을 투자해 정저우시에 신사업본부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힘
- 허난성의 폭스콘 투자 유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짐

(아주경제 2024.7.26) 이지원 기자

1. 한화에너지 등 발전기업 6개사, 바이오매스 산업 생태계 강화 나서

- 한화에너지 등 바이오매스 기업 6개사가 힘을 뭉침. 31일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發電) 기업 6개사가 모여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함
- 이번 업무협약은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바이오매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됨
- 광양그린에너지, 씨지앤대산전력, OCI SE, GS EPS, 포승그린파워, 한화에너지 6개 기업이 참여함

(포인트데일리 2024.7.31) 김국헌 기자

2. 지상과 하늘 연결한다... 현대차·기아, 인도네시아 AAM 사업 첫 발/ 현대차그룹, 내년 SDV 시제품 내놓는다... “양산도 준비”

- 현대차·기아는 29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신수도 인근 사마린다 공항에서 지상과 항공을 통합한 모빌리티 기술을 실증하는 공개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힘
- 이날 진행된 기술 실증은 현대차·기아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 ‘셔클’과 미래항공모빌리티(Advanced Air Mobility, AAM) 서비스를 실제 고객의 이용 환경에 맞게 개발하고 향후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됨
- 한편, 현대차그룹이 내년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정의 차(SDV)’ 시제품을 내놓음
- 이미 차세대 차량 개발 체계가 마무리 단계로, 2026년 본격적인 양산에도 나설 예정임

(한경닷컴 2024.7.29) 차은지 기자

(뉴시스 2024.7.29) 유희석 기자

3. 롯데, 日 전기차 충전사업 진출... 롯데家 3세 신유열 強드라이브

- 롯데가 일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 진출을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섬
- 일본 롯데홀딩스는 26일 롯데이노베이트 자회사 이브이시스(EVSIS)가 일본 차데모(CHAdEMO) 협의회로부터 전기차(EV) 급속충전기 30kW 모델과 120kW 모델에 대한 차데모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힘. 차데모는 일본 도쿄전력이 개발한 전기차 급속충전기 규격임
- 한국과 일본 롯데지주사 임원에 오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전무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신 전무는 롯데지주, 롯데홀딩스 이사로 이름을 올리면서 신 회장을 이을 ‘롯데그룹의 차기 리더’로서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임

(더구루 2024.7.26) 김형수 기자

4. 두산에너지빌리티, 루마니아 원자력규제기관 인증... “원전 개선사업 참여 추진”

-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루마니아 원자력규제기관(CNCR)으로부터 루마니아의 대형 원전과 SMR의 기자재 설계, 제작, 구매, 시공 및 서비스를 위한 인증을 취득했다고 31일 밝힘
-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루마니아 체르노보다 원전 1호기의 설비개선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임
- 김종두 두산에너지빌리티 원자력BG장은 “이번 인증 취득으로 루마니아 원전 설비개선 사업과 SMR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말함

(인더뉴스 2024.7.31) 홍승표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7.26(금) ~ 2024.8.1(목)

제공일시 2024 08 0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수소 산업 키우려는 독일, 수소 라인 깔려는 이탈리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이 중단된 독일이 수소 공급과 생산,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음 (인팩트온 2024.7.29) 홍명표 기자
- 독일의 유틸리티 기업 EnBW는 2032년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수소를 운반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에 10억유로(약 1조5046억원)를 투자한다고 로이터가 25일(현지시각) 전했다. EnBW가 건설하려는 수소 운송 파이프라인은 독일 내에서 생산되는 수소의 운송과 유럽 전역과 그 외 지역에서 독일로 수소를 수입하기 위한 것임
- 독일은 화석 연료의 대안으로 풍력 및 태양광으로 생산되는 그린 수소에도 투자하고 있음. 그린 수소에 투자하는 이유는 에너지 전환 이외에도 탄소 발자국을 줄인 제품으로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음. 로이터에 의하면, 독일은 지난 10년간 수소 관련 특허도 많이 획득했다고 함
- 또한, 독일의 철강과 화학업계 관계자들은 석탄과 가스 기반 그레이 수소를 그린 수소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유틸리티 업체들은 투자 포트폴리오에 전기분해와 수소 수입 시설을 증설하고 있음. 수소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독일의 가스발전소는 2024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입찰에 들어감
- 철강업체 중에서 티센크루프(Thyssenkrupp), 잘츠기터(Salzgitter)와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도 수소에 베팅해 녹색 철강 생산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임
- 유틸리티 기업의 경우, 독일의 RWE는 2030년 말까지 2GW의 전기분해와 수소로 전환할 수 있는 3GW급의 가스 발전소를 계획하고 총 550억유로(약 83조원)를 투자함. 총 투자액 가운데 20조원 이상은 수소에 투자함. 또한, 유니퍼(Uniper)는 잘츠기터와 계약을 체결, 빌헬름스하펜(Wilhelmshaven)에서 암모니아를 수소로 만드는 시설에 수소를 공급함
- 그러나 수소 운반용 파이프라인 건설에는 거액이 필요함. 로이터에 의하면, 총 연장 9666km의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수소 네트워크의 총 비용은 약 197억유로(약 30조원)나 든다고 함. 여기에 전해조와 수소 저장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분해 플랜트와 재생 가능 용량을 추가한다면, 독일 PwC의 계산상 2030년까지 총 650억~800억유로(약 99~120조원)가 들 것이라고 함
- 화석연료 매장량이 적은 독일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수입국이었음. 그래서 독일은 파트너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 수소의 경우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와의 기존 무역 관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남부 유럽, 북아프리카, 호주, 캐나다, 칠레와도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고 있음

- 진짜 문제는 독일산 수소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냐는 것임. 컨설팅 기업 맥킨지 (McKinsey)는 2030년 독일의 수소 생산 비용이 킬로그램당 10달러(약 1만3615원)가 될 수 있다는 데이터를 로이터에 제공했음. 이는 저렴한 재생 에너지와 낮은 인건비로 그린 수소를 만드는 국가와 경쟁이 힘든 가격임. 그런 국가에서 수입하면 킬로그램당 3~8달러(약 4084원~1만원)면 되기 때문임
- 한편, 이탈리아도 수소 관련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음. 이탈리아 에너지 장관은 24일(현지시각)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탈리아가 올 가을 남부 지중해에서 북유럽으로 수소를 운송하는 네트워크를 제안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스위스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음
- ‘SouthH2’라 불리는 이탈리아의 수소 운송 네트워크는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을 연결, 남부 지중해에서 생산된 재생 가능한 수소를 유럽으로 운송함
- 이탈리아가 구상하는 수소 운송 네트워크는 총 연장 3300km로, 연간 400만 톤(Mtpa) 이상의 수소 수입 용량을 갖췄음. 이 파이프라인은 2030년으로 설정된 EU의 수소 수입 목표의 40%를 처리할 수 있으며 빠르면 2030년에 가동할 수 있다고 함